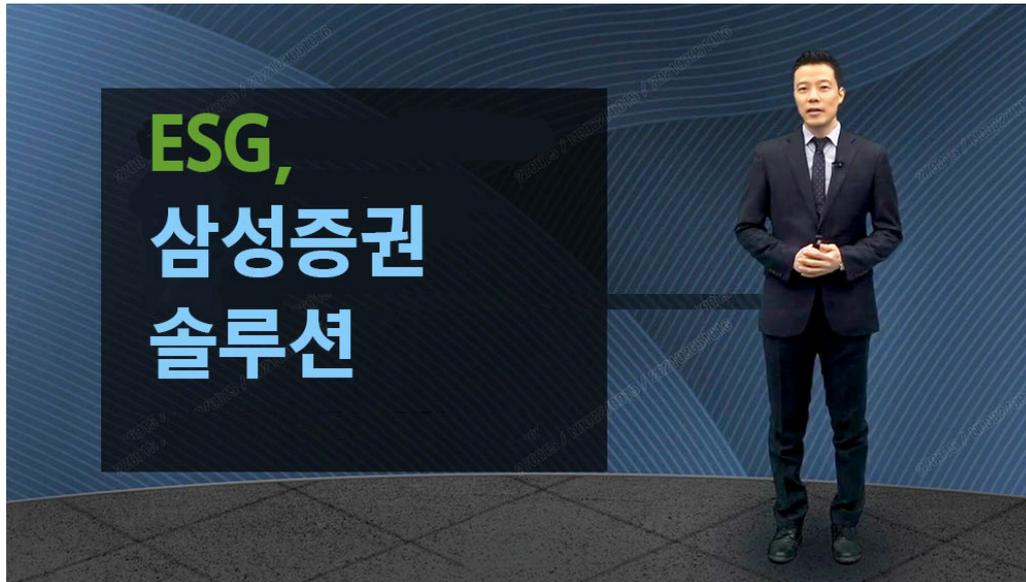


삼성증권 법인고객 대상 'ESG 컨설팅' 인기몰이



삼성증권은 기업들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는 'ESG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ESG 컨설팅은 지난 2월부터 시작해 벌써 IT업계 굴지의 기업 등 50여 기업의 컨설팅을 진행했다. 재계에서는 삼성증권의 ESG 컨설팅이 입소문을 타면서 하루 평균 4~5건 이상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삼성증권의 법인대상 ESG 컨설팅은 '법인고객 토털솔루션' 등 국내 기업들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온 법인컨설팅팀에서 주관한다. 실제 ESG 관련 자문 및 전략발굴은 지난해 11월 리서치센터 내 신설된 'ESG연구소'를 통해 진행한다. 이후 ESG 투자나 채권발행 등 실행이 필요할 경우는 IB의 채권 발행부서까지 연결, 계획부터 실행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한다.

지난해 신설된 삼성증권 ESG연구는 'ESG, 자본시장의 뉴노멀', '성공적인 ESG채권 발행 전략' 등 굵직굵직한 ESG 리포트를 발간하면서, 포괄적인 ESG의 개념부터 각 기업의 경영활동에 ESG를 접목하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ESG경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삼성증권의 법인 ESG컨설팅은 일률적인 자문에서 벗어나 각 업종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들의 견해를 종합해, 업종별 ESG의 주요 이슈와 특징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제공한다.

한상훈 삼성증권 영업솔루션 담당은 "ESG 경영에 대한 논의는 단기적 유행이 아닌 장기적 트렌드이기에 초기 단계인 현 시점에 어떻게 준비하는지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면서 "전략 제공에서 나아가 증권업의 특성을 바탕으로 실행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경영에 꼭 필요한 플랜두씨(Plan-Do-See)의 전 과정을 삼성증권 내에서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증권은 ESG 컨설팅 외에도 다양한 법인의 니즈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온라인 주총장' 서비스가 있다. 온라인 주총장은 주주총회의 전자투표제도 도입에 따라, 주주들이 주총장 방문 없이 온라인에서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간 수기로 입력했던 주총 관련 공시 등 내용을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온라인 주총장에 반영되도록 해 특히 기업 주총담당자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더불어 기업법 전담 직원을 배치해 세부적인 실행과 운영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4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신청하며 상장법인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다.

ESG 컨설팅 및 온라인 주총장 관련된 문의 및 신청은 삼성증권 법인컨설팅팀에 하면 된다. ▼